

V리그 도전장 뉴페이스, 이태리 2부리그 자네티 주목

2025-26 여자프로배구 트라이아웃

선호도 조사서 2개 구단 1위 평가
193cm 공수 겸비 아포짓 스파이커
데미도바·자도로즈나이드 대어급

2025-2026시즌 프로배구에서 뛸 외국인 선수들을 뽑는 트라이아웃이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막을 올린 가운데 V리그에 도전장을 던진 여자부 뉴페이스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자부는 트라이아웃 신청자 72명 중 구단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뽑은 40명에서 신청 취소자를 뺀 37명에 2024-2025시즌 완주자 중 참가를 신청한 6명을 합쳐 43명의 최종 명단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시즌 페퍼저축은행에서 뛰었던 바르바라 자비치를 포함한 3명이 추가로 불참함에 따라 40명으로 줄었다.

40명 중 GS칼텍스에서 뛰었던 '쿠바 특급' 지젤 실바(등록명 실바)는 일찌감치 재계약했고, 나머지 선수들이 구단의 지명을 기다린다.

테스트와 면접 과정을 거친 후 9일 열리는 드래프트 최대 관심은 V리그에 처음 도전하는 선수들



자네티

가운데 누가 구단들의 낙점을 받을지 여부다.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구단 선호도 조사에서 2개 구단으로부터 1위 평가를 받은 엘리스 자네티(29·이탈리아)다.

이탈리아 2부리그 부스토 아르시치오에서 아포짓 스파이커로 활약하는 자네티는 키 193cm로 이탈리아 명문팀 노바라에서 뛰는 등 풍부한 경험과 공수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다.

또 지난 시즌 독일 1부리그에서 활약한 아웃

사이드 히터 빅토리아 데미도바(20·러시아)와 2021 발칸 챔피언십 U-19 베스트 아웃사이드 히터로 선정된 반야 사비치(24·세르비아), 2024-2025 루마니아 슈퍼컵 최우수선수(MVP) 아우나 자도로즈나이드(24·루마니아)도 대어급으로 꼽힌다.

키 190cm인 데미도바는 지난 시즌 독일 1부리그에서 뛰며 독일컵 우승에 힘을 보탤다.

2005년생인 데미도바는 지명받을 경우 역대 최연소 여자 외국인 선수 기록을 세운다.

또 193cm인 사비치는 세르비아 1부 리그 제딘스티보 소속으로 연령별 대표팀과 성인 대표팀에서 활약했다.

이와 함께 키 192cm의 아포짓 스파이커인 자도로즈나이드도 화끈한 공격력을 자랑한다.

데미도바와 사비치, 자도로즈나이드는 각각 1개 구단으로부터 2위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아포짓 스파이커로 작년 세르비아 리그 득점 3위에 올랐던 아페도 만양(25·미국)과 캐나다 국가대표 경력의 나타샤 켈킨스(29), 올렉산드라 비첸코(30·우크라이나) 등도 주목받고 있다.

또 같은 포지션으로 그리스 리그에서 뛸 코트니 부제리오(25·미국)와 케냐 출신의 파멜라 오위노(24) 등도 구단들의 지명을 기대한다.

연합뉴스

“초반 LG, 지금은 한화…차근차근 쫓아갈 것”

이범호 KIA 감독 “선발이 잘 버텨줘”

2025 프로야구 디펜딩챔피언이자, 개막 직전까지 ‘압도적 1강’으로 거론됐던 KIA 타이거즈의 위치는 7일 현재 6위다.

시즌 초반 한때나마 최하위로 떨어졌던 걸 돌아보면 많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다.

KIA는 최근 2연승으로 16승 18패, 승률 0.471로 5위 kt 위즈에 1.5경기 뒤처진 6위다.

이범호 KIA 감독은 한 번에 따라가는 걸 노리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선두권을 쫓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전을 앞두고 공동 1위를 달리는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를 언급했다.

LG와 한화는 나란히 23승 13패로 6위 KIA보다 6경기 앞서 있다.

그는 “초반에 LG가 좋았고, 지금은 한화가 좋다. 분명히 어떤 시점에 저희를 포함해 연승하는 팀이 생길 것”이라면서 “차근차근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한 방에 딱 (선두권으로) 갈 수는 없다. 좋은 팀은 왜 좋은지 체크하면서 잘 따라붙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IA에 다행인 점이라면 외국인 ‘원투 펀치’인 제임스 네일과 애덤 윌러가 견재한다는 사실이다.



경기 지켜보는 KIA 이범호 감독.

연합뉴스

네일과 윌러는 등판할 때마다 평균 6이닝 이상 버텨주면서 작년보다 할거워진 불펜 부담을 최소화한다.

네일은 승운이 따르지 않아 8경기에서 단 2승에 그쳤으나 평균자책점 1.09로 전체 1위를 달리고, 윌러는 4승 1패 평균자책점 3.43으로 제몫을 해준다.

김도현도 1승 2패 평균자책점 3.10으로 5선발 이상의 활약이다.

이 감독은 “네일과 윌러 모두 이닝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다. 김도현도 투구 수만 문제 없으면 6~7이닝을 던지고, 이는 양현종도 마찬가지다. 불펜 필승조가 작년보다 젊어도 선발들이 잘 버텨준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이예원·박민지·홍정민 ‘KLPGA 첫 2승’ 도전

NH투자증권 챔피언십 내일 개막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5시즌 7번째 대회인 202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이 9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수원 컨트리클럽(파72·6,597야드)에서 펼쳐진다.

올 시즌 두 차례 이상 우승을 차지한 다관왕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기존 우승 선수들의 다관왕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엔 박보경, 이예원, 김민주, 방신실, 김민선, 홍정민 등 올 시즌 우승 트로피를 든 6명의 선수가 모두 출전한다.

가장 눈길이 가는 선수는 지난 달 국내 개막전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예원이다.

지난해 3승으로 공동 다관왕에 올랐던 이예원은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이예원은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대회 2연패와 함께 올 시즌 첫 2승 도전에 나선다.

이예원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1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1위를 유지하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현재 컨디션이 좋고 샷 감각도 안정적이라서 드라이버 샷과 아이언 샷 리듬을 잘 유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그동안 그는 수원 컨트리클럽에서 유독 좋은 성적을 냈다.

그는 “나와 잘 맞는 코스”라며 “다만 그린 뒤

의 경사가 심해서 신중한 공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LPGA 투어 첫 메이저 대회인 크리스토프 앤서 제47회 KLPGA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둔 홍정민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홍정민은 지난 4일 한 타 차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한 뒤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와 공황 장애 진단을 받았던 사실을 뒤늦게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컨디션은 조금 떨어졌지만,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해서 자신감을 얻었다”며 “대회 전까지 컨디션을 잘 회복해서 연속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올 시즌 우승은 못 했지만, 2021년과 2022년 이 대회 2연패를 차지했던 박민지도 우승 후보로 꼽힌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KLPGA 투어 통산 20승에도 도전한다.

박민지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고 구옥희와 신지애가 지닌 KLPGA 투어 최다승(20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지난 시즌 공동 다관왕에 오른 박지영, 마다숨, 배소현은 시즌 첫 승을 노린다.

주최사인 NH투자증권의 후원을 받는 박민지는 “오랜 기간 함께해 온 스폰서에 성적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출사표를 올렸다.

주최사는 2억5,000만원 상당의 고급 침대(3번 홀), 수입차 벤츠 E클래스(16번 홀) 등 다양한 후원원 경품을 준비했다.

2017년 김자영과 이나경이 기록한 코스 레코드(8언더파 64타)를 뛰어넘는 선수는 3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연합뉴스



‘멈추지 않는 바람’ 이정후, 시즌 4호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7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경기에서 3호포 시즌 4호 홈런을 터트린 뒤 세리머니하고 있다.

AP=연합뉴스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장…초심 잃지 않을게요”

광주FC 부주장 김진호

작년 이적…주전 풀백 등 활약 “항상 최고의 모습 보여주겠다”

광주FC 부주장 김진호(25)가 K리그 통산 100경기를 달성했다.

김진호는 지난 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2라운드 김천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다.

2022년 강원FC에 입단해 K리그 무대에 데뷔한 김진호는 입단 첫해부터 K리그1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는 등 28경기 3골 2도움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지난해 광주로 이적한 김진호는 곧바로 주전 풀백으로 자리 잡았고, 팀 내 최다 출장(36경기) 기록을 세우는 등 팀 내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2024-2025 ACL E 모든 경기에도

출전하는 등 광주가 달성한 ‘K리그 시·도민구단 최초 ACL E 8강 진출’ 역사에 주역으로 활약했다.

100경기를 맞이한 김진호는 “데뷔했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0경기를 달성했다는 것이 무척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늘 경기장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의 100경기 기념 시상식은 오는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질 전북현대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13라운드 홈경기에서 열린다.

김진호의 100경기 출장 기념 특별 굿즈(키링, 머플러, 패치, 포토카드) 판매도 진행된다. 굿즈는 7일 오후 2시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공개됐으며 경기 당일에는 경기장 내 MD샵에서도 판매된다.

조혜원 기자
광주FC 부주장 김진호가 K리그 통산 100 경기를 달성, 소감을 밝혔다. 광주FC 제공



손현호·안시성. 아시아역도선수권 출전

국군체육부대 손현호(25)와 광주시청 안시성(28)이 2025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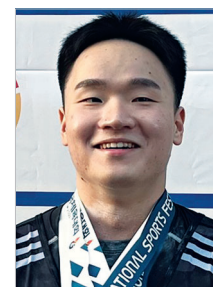
2025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는 9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장산에서 열리며 대표선수단은 7일 출국했다.

광주 출신으로 오는 7일 광주시청 복귀를 앞둔 손현호는 남자 81kg급에 나선다. 손현호는 지난해 말 열린 2024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용상에서

197kg으로 동메달을 획득했고 최근 제84회 문국서상천태 역도경기대회 용상에서 205kg을 들어 올려 한국신기록(종전 204kg)을 세웠다.

안시성은 여자 64kg급에 나선다. 안시성은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함께 은메달을 획득했고 지난 3월 2025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인상과 함께 각각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남자 9명, 여자 10명 등 19명을 파견했다. ‘파리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손현호



안시성

박혜정(고양시청)은 아시아역도선수권 2연패에 도전하며 김수현(부산시체육회)은 3연패를 노린다.

조혜원 기자